

##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라 2

### I. 서론

전도자는 1장과 2장에서 인간적 지혜, 쾌락, 수고의 헛됨을 말하며, ( )에서 추구한 삶의 의미는 전도자뿐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이 탐구한다 할지라도 결국 ‘( )’로 귀착되고 만다는 사실을 논증하였다. 그렇다면 ‘세상의 자연현상과 인간의 이성적 탐구, 인간의 수고는 모두 의미가 없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갖게 된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로 전도자는 3장에서 ( )을 등장시키고 있다. 앞장 후반부(2:24~26)에 이어 인생의 허무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 )를 찬양하는 긍정적인 시각을 통해 인생에 대한 ( )적인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 4장은 인간 사회 속에서 엿보여지는 부조리한 면들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키며 인생의 허무함은 어느 특정 지역, 또는 특정 계층, 특수한 무리들에게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의 모든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4장부터는 대체로 잠언적인 내용의 교훈 및 경구들을 제시하며 이 ( )은 삶의 영원한 목적지가 아니라 ( )을 향해 가는 과정이라는 것, 그리고 세상의 처세술이나 방법을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II. 본문(전도서 3:1~4:16)

1. 하나님의 법칙과 인생의 허무(3:1-22)

본장은 보다 폭 넓은 ( )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사건과 관계들을 아름답게 지었다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획에 의해 만물을 적절하게 창조하셨으며,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 )하고 의지하는 전인적인 헌신에 이르기를 소망하셨다. 전도자는 이처럼 하나님의 포괄적인 섭리를 생각하며 평범한 ( )의 영역도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영원한 ( )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도록 권고하고 있다.

1)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해 아래 인생의 절대 허무(3:1-10)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범사에 기한을 두셨고 섭리적으로 역사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 ) (a time)’를 28번씩이나 강조했다 (2-8절). 모든 인생은 섭리적 역사에 의해 출생과 죽음, 심음과 거둢, 기쁨과 슬픔,

획득과 상실, 외침과 침묵, 전쟁과 평화의 때를 반복한다.

(1) 범사의 기한과 때를 정하신 하나님의 섭리(1-8)

- ①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음(1)
- ②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음(2)
- ③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혈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음(3)
- ④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음(4)
- ⑤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음(5)
- ⑥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음(6)
- ⑦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음(7)
- ⑧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음(8)

\*\*\*이처럼 만물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고유의 시기가 있으므로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사건의 시기나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경시킬 수 없다. 따라서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모든 일들은 가장 세밀한 것까지도 ( )를 이룬다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2) 해 아래 사는 인간의 수고와 허무함(9-10)

- ①“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9절)
- ②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음(10)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의 수고와 행위가 무가치하고 인간에게 참다운 유익과 소망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하나님이 인간에게 ‘( )’을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때를 무시하고 사사로운 ( )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수고와 ( )을 허용하신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 2) 하나님의 영원성(11-15)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임을 밝힘으로써 온 우주 만물이 ( )를 따라 운행되며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의 욕망에 의해 생활하는 자는 반드시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음을 선포한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기술하는 본 단락은 먼저 하나님의 창조 사실과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는 인간의 한계(11절)를 언급한 다음, 삽입 형식으로 인간의 본분(12, 13절)을 밝히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 )(14, 15절)을 다루고 있다.

### (1)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한계(11)

①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음(11a)

②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음(11b)

③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음(11c)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특별히 인간에게는 ( )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는 죄악된 인생의 유한성과 연약성 및 그로 말미암는 ( )을 극복하는 길을 제시한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

조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사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은 ( ) 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2) 인생을 대하는 인간의 본분(12-13)

①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12절)

②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13절)

\*\*12절에서 인생이 할 수 있는 최선책은 현재의 삶을 즐기는 것이라고 밝힌 후에 13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인생에서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 )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먹고 마시며 노동을 즐기는 것과 같은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들도 결코 당연시 될 수 없으며,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선물이요, 은혜라는 것이다.

(3)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영원성과 소망(14-15)

①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임(14a)

②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음(14b)

③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임을 내가 알았음(14c)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영원하며 그 누구도 꾀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때로는 실망스럽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고  
( )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④“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15절)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일들을 포함하여 해 아래 새것은 없다고 하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라는 말은 ❶‘하나님은 꾀박받는 자(유린  
당하는 자)를 찾으신다’, ❷‘하나님은 지난 일을 반복하신다’, ❸‘하나님은 지난 일에 대  
해 해명을 요구하신다’로 해석할 수 있다. 문맥 전체를 고려하면 ‘하나님은 지난 일을  
반복하신다’라는 해석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

### 3) 인간의 불의와 하나님의 심판(16-22)

앞 단락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무가치함과 허무함을 드러내고 있는 본  
단락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만드는 두 가지 요소, ❶공의를 행하  
는 법정에 존재하는 불의(16, 17절), ❷죽음의 무차별성(18-21)을 제시하고 답을 내린  
다.

(1) 세상의 불의와 하나님의 절대 심판에 대한 소망(16-17)

정의를 수호하는 기관조차 ( )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최후 심판의 날 가장 ( )이 있게 될 것을 반증한다.

①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음(16)

②내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임(17a)

③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음(17b)

## (2) 죽음으로 인한 인생 만사의 허무 강조(18-21)

법정에서의 불의와 함께 사람들을 혼란에 빠지도록 만드는 요인은 짐승과 동일하게 죽음에 처해진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은 무덤을 인생의 종말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의인과 악인이 동일하게 흙으로 돌아갈 뿐이라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이어지는 22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 )을 따라 ( )하는 자들에게 이생에서의 복과 즐거움을 안겨 주신다는 것, 그러기에 ❶현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할 것과 ❷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기쁨을 누릴 것을 강조하고 있다.

①짐승과 동일한 죽음으로 인해 인생의 한계를 깨닫게 됨(18)

②짐승과 인생의 동일한 죽음,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난 것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19)

(3)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 최선의 길임(22)

①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음, 그것이 그의 몫임(22a)

②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려올 자가 없음(22b)

2. 사회적 부조리에 대한 한탄(4:1-16)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는 세상에서 전도자는 죽은 자가 살아 있는 자보다 더 행복할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또한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는 것도 시기만 얻을 뿐이며, 개인주의적인 삶, 세상의 인기와 명예도 모두 헛된 것이라고 말한다. 전도자는 희망적이지 않은 이야기들을 하며, 세상이 아닌 다른 곳으로 우리의 시선을 이끈다. 헛된 세상의 상대적 개념인 ( )을 바라보며 살라는 것이다.

1) 학대받는 자의 허무함(1-3)

본 단락은 사회 가운데서 일어나는 ( )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인생의 허무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사실 이스라엘은 ❶역사적으로 주위의 열강들에 의해 침략과 압제를 당하고 약소국으로서의 설움을 절실하게 느껴왔다. ❷국내의 정치적 상황도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의심할 정도로 암담했다. ❸통치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갖고 약자를 위협하며 착취했다. 이러한 상황은 너무나도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전도자는 욕과 같이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복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 (1)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 보았음(1a)
- (2)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음(1b)
- (3)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음(1c)
- (4)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 있는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된 자들이 더 복되다 하였음(2)
- (5)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않아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을 보지 않은 자가 더 복됨(3)

2) 시기와 인간 수고의 허무함(4-6)

전도자는 본 단락에서 다른 사람의 수고와 성공에 대해 ( )하는 모습을 통해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먼저, 수고와 성공이 타인에 의해 시기 받는 것을 통해 인간 수고의 허무함을 언급하고(4절), 이어서 참다운 지혜자의 삶은 ( )이 가득하다는 점을 결론적으로 피력하고 있다(5, 6절).

- (1) 내가 또 본즉 수고와 재주로 인해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 것이 헛됨(4)

\*\*성경에서 인간의 시기와 질투는, ❶아담의 타락 이후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의 ( )임(롬 1:29, 갈 5:20, 21), ❷인간의 질투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출 34:14, 신 29:20)와는 본질적으로 다름

- (2)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자기의 몸만 축냄(5)

\*\*우매자는 ‘수고’와 ‘재주’라는 말과는 대조적으로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할 뿐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 )  
으로 인해 스스로를 파멸시키게 된다.

(3)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6절)

### 3) 외로운 자의 허무함(7-12)

본 단락에서는 사회적 상처를 두려워한 나머지, 극도의 개인적( )  
경향을 보이는 사람의 고독과 비참함을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다(7, 8절). 또한, 이러한  
사실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상호 ( )된 삶, 즉 동료 의식을 갖고  
사는 삶의 복됨을 잠언적 형식으로 언급하고 있다(9-12절).

(1)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음(7)

(2) 사랑과 ( )의 대상이 없는 자의 노고는 헛됨(8)

①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수고의 끝이 없음

②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않음

③‘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는가’ 자신을 위해 행복을 누리지 못함을  
한탄함

④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임

**\*\*경쟁에서의 도피는 일시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다. 인간은 위로할 대상이 전혀 없는 고독한 상황 속에서는 결코 기쁨과 위로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전도자는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할지라도 상호간의 ( )를 통한 우애가 없으면 허무할 뿐이라고 거듭 강조하는 것이다.**

#### 4) 세상 인기의 허무함(13-16)

앞에서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게 만드는 다섯 가지 요소, ❶법정의 불의(3:16,17), ❷죽음(3:18-21), ❸학대(4:1-3), ❹시기심(4:4-6), ❺고독(4:7-12)에 대해 언급한 후, 마지막으로 ❻( )의 허무함(4:14-16)을 말하고 있다.

( )는 것을 선언하며 이스라엘의 역사적 경험과 자신의 개인적 체험을 토대로 어떠한 명성을 소유한 사람도 결국 허무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 (1)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음(13)
- (2)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어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14)
- (3)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음(15)
- (4)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16a)

(5)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임(16b)

\*\*세상의 권력자들은 집권 당시에는 존경과 명성을 누리겠지만 후대에 의해서는 모든  
공적이 망각되고 경멸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세속적 인기와 명예를 추구하  
는 것의 ( )성을 배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평가에 연  
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 )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  
는 것이다.